

96. 직업상담원에서 발생한 근막통 증후군, 요추부와 경추부 신경근 병증

성별 여 나이 42세 직종 직업상담원 업무관련성 낮음

1. 개요: 정○○(여, 42)은 1996년 7월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던중 2005년 11월 우측 제5요추부 신경근 병증, 우측중간 경추부 신경근 병증으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환경: 정○○는 1996년 입사 이래 직업상담원으로서 업무를 해왔고 주요 업무는 내방민원상담, 서류작업(문서기안, 자료취합, 입력작업), 전화상담, fax 확인 등 기타 이었다. 2004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지원팀 팀장(선임상담원)으로서 취업지원팀 업무 총괄을 포함한 업무를 했으며, 주로 앉아서 PC작업을 수행했다. 작업조건과 작업환경조건을 조사했고 인간공학적 정밀평가를 위해 비디오촬영을 실시했다. 조사대상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RULA와 REBA 분석결과 정○○와 정○○의 경우 RULA와 REBA의 action level이 각각 2와 1로 나타나 근골격계질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송○○의 경우 RULA action level이 3이고 REBA는 2로 나타나 근골격계질환 위험성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.

3. 의학적 소견: 2005년도 9월부터 ‘저배통 및 경추통’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 이외에 호흡기계, 소화기계, 이비인후과계, 산부인과계 질환으로 치료를 십수차례 받았다. 1997년 결혼한 후 세 번의 출산을 했고 그 출산 전에 각 한번씩 세 번의 질박 유산으로 수술을 받았다.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고혈압, 당뇨는 없으나 어머니로부터 수직감염으로 B형간염 보균자이지만 검사 결과상 별 이상은 없다. 2003년 셋째 아이를 낳고 전남 대학교 병원에 임신중독증으로 입원했다.

4. 결론: 근로자 정○○은

- ① 작업과 작업환경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위험도가 낮고, VDT 작업에 한정된 평가에선 중간 정도의 위험과 일부 작업조건에서는 권고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나
- ② 직업상담원으로서 업무의 작업기간, 작업자세의 위험도 수준, 컴퓨터 입력작업의 작업시간, 기타 VDT 작업공간상의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질환을 발생할 정도의 위험수준이 아니며,
- ③ 의학적으로 볼 때 진단명의 불확실성, 질병의 경과와 오랜 치료기간 및 치료에 대한 반응, 그리고 반복유산 등을 고려할 때

근로자 정○○의 근막통 증후군, 요추부와 경추부 신경근 병증은 직업상담원으로서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